

새해 벽두 LPG값 폭등 ‘월동물가’ 심각

신선식품 고공행진에 소비자물가 상승세 등유 가격도 15% 올라 난방비 부담 가중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석유 제품 가격이 폭등한데다 새해 벽두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신선식품 고공행진 16년 만에 최고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연평균 및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광주가 2.9%, 전남이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선식품 고공행진 속에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물가가 광주는 3.4%, 전남이 4.2%씩 오르면서 다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채소 파동 등의 여파로 광주(124.8)가 전년보다 20.6% 상승해 1994년 29.5%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도 신선식품지수가 133.5로 같은 기간 21.5% 증가하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한해 전과 비교해서 연간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무(84.6), 양상추(76.4), 배추(67.1) 등 농축수산물이 많았고, 공업제품으로는 복어채(23.7), 오징어채(19.1), 연탄(18.2), 휘사용LPG(15.5) 등이 많이 올랐다.

전남은 무(88.3), 배추(88.1), 마늘(66.4), 연탄(16.3), LPG(자동차용 16.2), 납자내의(11.5)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설날값이 10% 가까이 오른데다 국제 밀과 옥수수 값도 크게 상승해 식료품 가격 인상에다 전세금, 대학등록금, 지방 공공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가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휘발유 급등에 LPG가격 사상 최고가 경신=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년여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으며 경유 값도 1600원대를 돌파했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 당 1818원, 경유는 ㎖ 1616원을 기록했다.

전남도 휘발유 값이 ㎖ 당 1799원으로 18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유 가격도 ㎖ 당 1597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지역 석유제품 가격이 12주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 가격도 지난해보다 15% 이상 비싸져 한파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고유가 여파에 정부가 ‘관심경보’까지 발령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가정용 프로판 가스가 22%, 차량용 부탄가스는 16%, 주택용 도시가스가 5.2%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LPG 수입·판매사인 SK가스가 지난 1일부터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차량용 부탄가스의 총진소 공급가격을 각각 kg당 168원, 162원 인상하면서 가정용 프로판 가스는 kg당 1,292.80원에, 차량용 부탄가스는 1,679.18원(㎖ 당 980.64원)에 공급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폐지

올해부터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도입했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1일부터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와 비슷한 성격의 카드론 취급수수료도 동시예산을왔다.

/연합뉴스

미소금융 성실이용땐 금리인하

금융위원회는 2일 미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린 상반기 중 마련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에 대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현재 연 4.5%인 적용금리를 인하해줄기로 했다.

또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납입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혜택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점포수 확장·사업 다각화·차별화 백화점 ‘빅3’ 영업경쟁 가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 백화점업체가 올해 더욱 치열한 대결을 벌인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빅3’는 올해 매출 신장을 목표치를 10% 이상으로 높여 잡고 국내외에 활발한 출점을 통해 외형 확대에 나선다.

또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를 벗어난 이커머스(e-commerce)나 패션, 프리미엄 식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다른 백화점과는 다른 백화점’으로 차별화하는 전략도 활발히 펼쳐나간다.

◇점포수 확장 경쟁 = 지난해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매출 10조원 시대를 연 롯데백화점은 올해에는 12조 1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펼친다.

베이징점에 이은 중국 2호점인 텐진 1호점을 올 4월에 열고, 내년말 텐진 2호점, 2013년 베트남 하노이점과 중국 선양점 등 ‘VRICs(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에서 출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경북 첫 점포이자 전국 13호점인 대구점을 8월에 개장하며, 내년 청주점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기존 점포를 새로

단장한다. 작년 말 천안에 재개장한 9호점 충정점의 나머지 절반을 5~6월께 전면 개장하고, 인천점도 비슷한 시기에 기존 면적보다 1만6000㎡(5000평) 늘리고 세계적인 명품과 인기 SPA 브랜드를 한데 입점하는 등 고급화에 재개장한다.

◇사업 다각화·차별화 =롯데백화점은 오는 7월 프리미엄 온라인몰을 연다. 프리미엄 상품 중심 구성과 1대 1 맞춤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 연계 마케팅 등 백화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의 특성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또 글로벌패션(GF)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작수인 상품과 자체 기획 상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대백화점도 상품군별로 새로운 개념의 편집매장을 도입, 운영하고 직매입 상품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매장 차별화를 위해 상반기 미국 뉴욕 상류층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된 프리미엄 식품관 딘 앤 델루카(Dean & DeLuca)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H&M, 갬, 유니클로를 총점점, 인천점 등에 들여와 로드숍 중심으로 전개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들을 국내 백화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새해엔 토끼 잠옷”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 모양의 잠옷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기능, 생활용품 등 다양한 모양의 토끼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저축은행 신용등급 줄하향...PF 부실채권 탕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가 새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꺼야할 ‘발등의 불’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PF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리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업체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말 정기평가에서 부산, 부산2, 솔로몬, 한국, 경기저축은행의 후순위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

존 ‘BB’에서 ‘BB-’로 각각 낮췄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B-’인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등급전망을 일제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한신평은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부실 PF 여신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으나 부실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자본확충은 미약하다”고 등급 조정 사유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도 지난달 말 부산, 부산2, 솔로몬, 한국저축은행 등 4곳의 신용등급을 ‘BB(안정적)’에서 ‘BB-(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토마토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BB-’를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기계·자동차·IT 중형株 관심

2010년을 1,682로 출발한 코스피는 21.9%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인 2,051로 마감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 달동안 7.7%(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2010년 최고치)의 상승을 기록했음도 여전히 투자심리는 살아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수급 환경을 토대로, 유럽의 재정위기 완화와 중국발 긴축 우려의 제한적 확산 등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상승과 맞물렸던 주요 요인들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

또 감세안이 연장된 미국에서는 고용시장과 주택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연말 소비경기의 개선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기회복 여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하지만 이번주 발표된 ISM지수 및 고용관련 지표 등에서는 완만한 회복세 연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부양 노력을 이어가는 당국의 조치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2011년 주식시장도, 그 시작에 있어 안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장세 대응에 있어 점검할 요인들 중 단기적인 화두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발표다.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기업들의 연간 EPS성장률은 실적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소수 대형주가 주도한 연말 장세의 근간에도 개별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향이나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감이 분명히 녹아 있었다.

따라서 실적발표 시즌을 앞두고 향후 시장 흐름은 실적 추경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군에 대한 집중화가 될 전망이다.

이것은 바로 최근 3주간 EPS추경치가 플러스 권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및 경기민감 소비재 군이 가장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 업종내 대표주의 경우도 가격부담감이 누적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때문에 종목별 세부 대응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들의 수급을 참조하는 전략을 병행하길 권한다.

물론 종목 선택에 있어 성장성에 대한 평가는 항상 불가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평론단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기관의 매수기반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집중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기관 수급에 대한 점검은 경계가 필요한 개별종목의 탐색에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짙어진 이번 실적발표 시즌에는 일정 부분에서 반작용 성격의 차익 매물 여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반면 부진한 주가 수익률에도 일부 중형주들은 상대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기대된다. 수익률 극대화를 노린 테마주 전반의 공격적인 대응까지 구사할 시점은 아니지만, 전방 산업의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는 기계, 자동차 및 IT부품 관련 중형주들은 매수 관심권에 들 수 있겠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153호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장관

1. 공모 목적

○ 선진 노사관계를 이룰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

2. 공모 계획

① 공모 지역

○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아래 3개 권역에 소재한 기관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관

② 응모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③ 교육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22호, 12.29) 제5조에 따른 참여 신청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각 10부

○ 제출기한 : 2011.1.14(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213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우편번호 427-718)

④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1.5(수) 15:00 고용노동부 대회의실 (정부과천청사 1동 2층)

* 참석기관은 2011.1.4(화) 14:00까지 고용노동부 담당자(02-2110-7361/7329)에게 통지

⑤ 기관 선정

○ 심사는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PT심사)로 진행

* 응모기관이 3개 기관 미만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 - 선정기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별표1 참고

* 주요 심사기준: ▲ 일터 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관련 교육과목, ▲ 참여형 교육 계획, ▲ 교육기관의 투자 규모 등 교육기관의 관심과 참여 등

⑥ 교육비 지원

○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교육기관별로 평균 1억원 내외로 지원 (기관별 지원규모는 교육계획 검토 후 조정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